

지역 살리는 사람의 경제

전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 토대 마련
중간지원조직·전문유통기업 설립 등 성장기반 구축

전북도가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2020~2024년) 기본계획의 토대를 마련했다.

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정무부지사)를 열고, 전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 공동체 복원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고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으며,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 확충, 사

회적경제 진출 다각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도와 전북연구원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북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민간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듣고 반영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체계를 설정·제안했다.

전북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경제 기업 단계별 성장지원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1009명을 창출했으며, 이번 용역결과와 사회적경제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전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올 12월 최종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의 핵심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이며, 자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판로 확대 문제와 금융 접근성 부족이므로 이를 위해 2020년에는 판로 지원을 위한 전문유통기업을 설립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사회적자치 지표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가 생태계가 더욱 확고해지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기자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 통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인권위, '인권위법 개정' 반발... "성적지향 삭제,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행위 개념을 배제하는 방향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19일 최영에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 인권 위상을 추락시키고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위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판단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지향은 개인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성별 역시 그 개념이 확장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 법률안은 여성과 남성 이외의 사람,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헌법상 차별 금지의 원칙을 배제하지는 것"이라며 "이는 인권위의 존립 근거에도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성별의 개념을 남성·여성으로만 축소하는 입법은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성적 지향은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40명이 지난 12일 발의한 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

개정안에는 인권위가 다루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의 범주에서 '성적 지

향'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개정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됐다", "양성·중성·표현·학문의 자유가 성적 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등으로 제시했다.

또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 수많은 보건적 피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등의 이유도 들었다.

/뉴스

전북도,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박차... 추진상황·성과 공유로 협력체계 강화

전북도가 적극행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혁신처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과'와 '시군 적극행정 소통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교육은 현장 실무에서 적극행정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행정의 개념과 관련법령,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인사혁신처 위촉 적극행정 전문강사인 김

경진 교수가 '적극행정 어렵지만 우리 함께 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경진 교수는 "적극행정의 시작은 환경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대한 빠른 인식과 적극적인 자세"라며 "도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적극행정의 필요성,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 중앙과 지방의 우수사례, 소극행정의 개념과 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높은 공감을 받았다.

이어서, 시군 적극행정 담당자들과

의 소통협력 회의를 실시하여 시군의 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유된 적극행정 추진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시도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시(12월, 행안부) 협조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그간 적극행정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했고,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와 명사특강, 적극행정 4행시 백일장 대회를 개최해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메가톤급 관광지로 재탄생 예고

관광기반조성 용역 보고회 가져

임실군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메가톤급 관광지 개발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임실군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관광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500만 관광객 유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아동친화형 문화관광지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핵심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치즈테마파크 건립사업과 관광기반조성사업인 사계절 장미원 조성사업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19일 임실치즈&식품연구소에서 심 민 군수를 비롯한 임실치즈테마파크위원장, 군 및 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즈테마파크 건립사업 기본부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와 임실치즈랜드 내 관광

기반 조성사업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용역 보고는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수경시설과 장미원을 조성하는 것과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입지와 지역여건을 꼼꼼히 분석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연중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 만들기 위하여 치즈테마파크 건립과 관광기반조성사업 및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국내 대표 관광지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이날 심 민 군수와 관계자들은 성공적으로 안착한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사업 확장과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함께하는 치즈문화와 놀이문화를 연계한 치즈테마파크 건립과 장미원 조성 등 복합적인 관광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내었다.

임실군의 대표축제이자, 대한민국 유일무이의 치즈를 테마로 한 축제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임실N치즈축제는 올해 축제를 전후해 60만여명이 방문하는 기업을 토했다.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축제 이후에도 한달여간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수놓은 국화꽃을 보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 데 이어 김장페스티벌까지 열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올해로 다섯 번째로 열린 임실N치즈축제가 국화꽃과 함께하는 가을철 대표축제로 안착하면서, 군은 장미원을 조성해 봄에도 장미꽃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가족참여형 임실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임실치즈 브랜드에 걸맞는 치즈테마파크를 건립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나라꽃 무궁화에 전북의 염원 가득 담아

전북산림환경연구소, '새만금'·'전라천년' 신품종 등록
6번째 신품종으로 관상 가치가 기대되는 '웅비' 출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무궁화 신품종으로 개발하여 출원했던 '새만금'과 '전라천년' 두 품종이 국립종자원으로부터 등록 결정이 고시되어 급년 중 품종등록을 완료하게 되었다.

국립종자원으로부터 10월 22일자로 품종등록이 결정된 두 품종은 2016년 출원한 흉단심계 '새만금'과 2017년 출원한 백단심계 '전라천년'으로, '안동'을 모수로 2010년부터 육종을 시작해 10여년 만에 등록에 성공하는 품종이 되었다.

'새만금'은 화폭이 10센티 내외의 흉단심계 홑꽃으로 꽃잎의 겹침이 거의 없으며 종자가 맺히지 않고 앞에 선모가 없는 품종으로 형질이 우수하여 관상 가치가 높은 품종이며, '전라천년'은 화폭이 12센티 내외의 백단심계 홑꽃으로 꽃잎 뒤에 분홍 무늬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생장이 우수해 가로수용으로 개발된 품종이다.

품종등록과 함께, 전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무궁화 신품종 '웅비'를 2016년부터 4년 만에 개발해 국립종

자원에 품종 출원했다.

신품종 '웅비'는 흉단심계 홑꽃으로 짙은 분홍색 꽃잎이 종모양으로 겹쳐서 모여 피며, 꽃잎 가장자리의 물결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 품종으로, 꽃모양을 통해 품종명에 전북이 하나로 모여 강한 도약의 물결을 이뤄내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웅비' 품종은 '백운', '덕현', '새만금', '전라천년', '온고을'에 이은 산림환경연구소 6번째 신품종으로 개화는 7월초에 시작하여 90일 이상 계속되며, 수형이 곧고 생장이 우수할 뿐 아니라 내한성이 강해 조경수 및 가로수용으로 관상 가치가 기대된다.

/김진성기자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학장(강정원)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장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차매예배,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텍시양복점 건물)

(H·P: 010-2078-4810)

명강사 초청 무료 공개 특강

도민 여러분!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재미있고 중요로움이 있는 특강에 무료로 초대합니다. 감성과 표현의 시대, 이미지시대, fun의 시대, 소통의 시대에 본 강의를 통해 재미있고 행복하며 유익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유혜원

강사: 김양욱

- 시인, 베스트셀러 작가
- 유머 자신감 연구원장
- KBS TV 아침마당 등 인기 강사
- 2009년 한국강사협회 추천 명강사
- 강의주제: "딱 한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실기 강사
-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 대표
- KBS TV 아침마당 출연 등
- 강의주제: "전장을 위한 스피치"

◎ 일 시 : 2019. 11. 21.(목) 오후 7시

◎ 장 소 : 참예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칠길굴다리 앞)

(장소주소: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9, 전주완주김제축협)

◎ 문의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

한국스피치·면접·리더십 컨설팅

전북도내 스피치과정 원우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